백화점, 목표주가 줄하향… 소비위축 '직격탄'에 실적 악화

현대百 목표주가 7.5만원으로 낮춰
3분기 매출액 전년比 26.8% 줄어

신세계百 목표가 24만원까지 하락
면세점 실적 회복 예상보다 더딜 것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백화점의 목표주가가 낮아지고 있다. 면세점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백화점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향후 실적 개선도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반영됐다.

9일 증권업계는 백화점들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췄다. 현대백화점 목표주가는 7만5000원까지 낮아졌고, 신세계백화점 백화점 목표주가는 24만원까지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실적 악화다. 현대백화점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8% 줄어든 1조42억원, 영업이익은 19.8% 줄어든 740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에는 3분기 매출액은 2조60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3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줄었다.

KB증권은 백화점 산업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KB증권 박신애 연구원은 "고정비가 급증한 여파를 피하지 못한 가운데 4분기 들어서 면세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마저 악화했다"며 "백화점 산업은 2021~2022년 고성장 시기가 지나고 다시 저성장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원 역시 "예상과 비교해 부진한 백화점 수익성을 고려한 실적 추정치 변경 및 업종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라 밸류에이션을 9.4배에서 8.5배로 조정한 것이 목표주가 하향의 주된 근거"라며 현대백화점 목표주가를 7만7000원으로 낮췄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실적 개선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IBK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은 "소비 경기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부진해 백화점 기존점의 성장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면세점 실적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며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27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췄다.

하나증권 역시 신세계에 대해 비우호적 소비 여건과 면세점 중장기 성장 가시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기존 3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조정했다.

하나증권 서현정 연구원은 "백화점은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증가로 이익모멘텀 회복 기준 기준점 성장률 임계치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등 비우호적 소비 여건과 면세점 중장기 성장 가기성에 대한 우려는 실적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증권사, 핀테크 기업과 '로보어드바이저' 선점 돌입

KB증권 AI 투자일임社와 맞손
MTS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신한투자증권 콴텍과 업무협약
'프라이빗뱅커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투자일임, 퇴직연금 등의 운영 서비스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주목받으면서 증권사들이 이 분야의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나서는 등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AI가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개인의 투자 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다.

KB증권은 AI 투자일임 기업인 디셈버앤컴퍼니, 파운트 등과 손잡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서 AI 투자일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했다.

최근 KB증권은 지난해 디셈버앤컴퍼니와 협력해 선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편, 원화로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던 기존 방식에서, 달러화로도 글로벌 ETF와 미국 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는 연금저축 운용도 가능해 노후 대비 및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KB증권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의 예수금을 AI가 자동으로 투자자 성향에 맞춰 ETF에 투자할 수 있는 '파운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콴텍과 투자일임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하나증권도 자동 투자 서비스인 '프라이빗뱅커(PB)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콴텍과 진행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은 향후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퇴직연금과 ETF 등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적용했다.

미국 고금리와 글로벌 전쟁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분산투자를 진행해 증시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전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계약자 수는 총 14만5954명으로, 지난해 말(11만4000명) 대비 약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임 운용금액은 257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기술 발달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인 PwC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2022년 2조5000억 달러에서 2027년 5조9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증권사들과 핀테크 기업들의 협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한 구조"라며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어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협업하는 사례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혁신 위한 제도 절실"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
장기적·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성 가이드라인 명확한 규정 필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토론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큰 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이뤄지려면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빨리 실행에 옮기고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토큰 증권을 통한 혁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토큰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토큰 증권 발행 유통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 길을 열어가는 상황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증권성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 투자자들은 증권으로 투자한 것을 모를 수 있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로는 증권성 문제가 없는 가상자산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의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알트코인도 증권성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증권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글·사진=원관희 기자

NH투자증권, '한국형 RE100' 가입

점진적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NH투자증권이 K-RE100에 가입했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RE100(K-RE100)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K-RE100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한국형 제도다. 기업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NH투자증권은 올해 K-RE100 이행 방안으로 신재생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 IT 기업인 해줌(Haezoom)과 함께 진행하였다. REC를 구매하면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 역시 인정받을 수 있다.

K-RE100은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구매, 직접 전력 거래 계약(PPA), 녹색 프리미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투자, 자체 건설 등을 통해 이행할 수 있다.

이번 가입은 NH투자증권이 견고한 ESG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범농협 그룹 일원으로의 ESG 경영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다. NH농협금융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며 농협금융의 2050년 탄소중립비전을 선포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협약인 넷제로은행연합(NZBA),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탄소배출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등 4대 협약에 동시에 가입하는 등 ESG 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위해 국제협약 가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NH투자증권 역시 향후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